

119구급대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구급 환자의 응급처치와 안전한 이송을 통해
환자의 경과를 좋게 하고
빠른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는 박동하는 심장의 심전도 그래프를
이미지로 형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119구급대'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 119구급대 이야기

화재·구조·구급 신고는 119
응급의료 상담 및 병원 안내도 119

130
큰대 소방
130주년
189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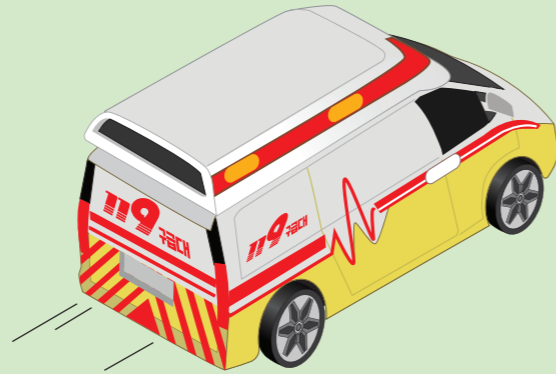
우리가 부르는 '119구급대'는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과 같이 소방업무의 한부분이며 1921년 3월 23일 최초로 「환자수송용자동차」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19구급대는 전문적인 응급환자 상담-출동-처치-이송체계입니다.

'119구급대'는 화재, 인명구조, 생활안전과 같은 소방업무의 하나로 발생하는 환자를 응급 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구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과 장비, 시설을 갖추고 고도로 훈련된 구급대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는 단순한 '구급차 출동 서비스'가 아닙니다.

119구급대는 긴급 신고 전화 '119'를 누르는 순간 긴급구조 시스템이 동작되며 상황 요원에서 구급대원, 지도의사까지 동시에 구급 환자를 위한 복잡한 네트워크망이 가동되어 구급 환자의 상태 평가, 응급 처치, 이송 및 전원을 하게 됩니다.



119 출동시스템



발신자위치추적(ANI)

지리정보(GIS, GPS)

출동대편성

현장정보지원(AVL)

출동체계

1. 위치확인

119를 누르는 순간 119상황실에서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며(발신자 위치추적(ANI), 위치정보(GPS) 시스템) 사전에 등록된 병력이 있는지를 확인(119안심콜 시스템) 합니다.

2. 출동지령

구급 환자의 상태 및 상황에 따라 차량, 헬기, 선박 등 출동대가 자동 편성되어 현장으로 출동(지리정보(GIS)시스템)하게 되며, 출동하는 차량이 정확한 위치에 도착할 수 있도록(현장정보지원(AVL) 시스템) 경로를 안내하고, 필요시 경찰 등 유관기관에 공동 대응을 요청합니다.

3. 전문처치 및 이송

출동 차량의 119구급대원은 구급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 처치를 시행하며 중증도 분류를 통해 전문병원(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119구급대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소중한 인명을 구한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먹고 사는 '119구급대' 1년 365일 24시간 그들의 신화는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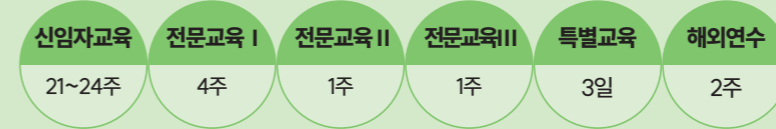
119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현장 응급 의료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소방공무원법과 119법에 근거하여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 소지자 중 2년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신입자 교육, 전문 구급대원 교육, 특별교육, 국외연수 등 고도의 교육·훈련·평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원은 고도의 교육·훈련과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임용된 119구급대원은 소방학교에서 신입자 교육과정(21주~24주)을 거쳐 현장에 배치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전문 구급대원 I, II, III 교육과정(1주~4주)과 특별교육 과정(3일)을 이수하고, 우수구급대원은 매년 미국의 EMS실습(2주)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50만건의 구급출동(구급차 1대당 연평균 2,100건)을 통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40시간 교육 훈련



119구급상황 관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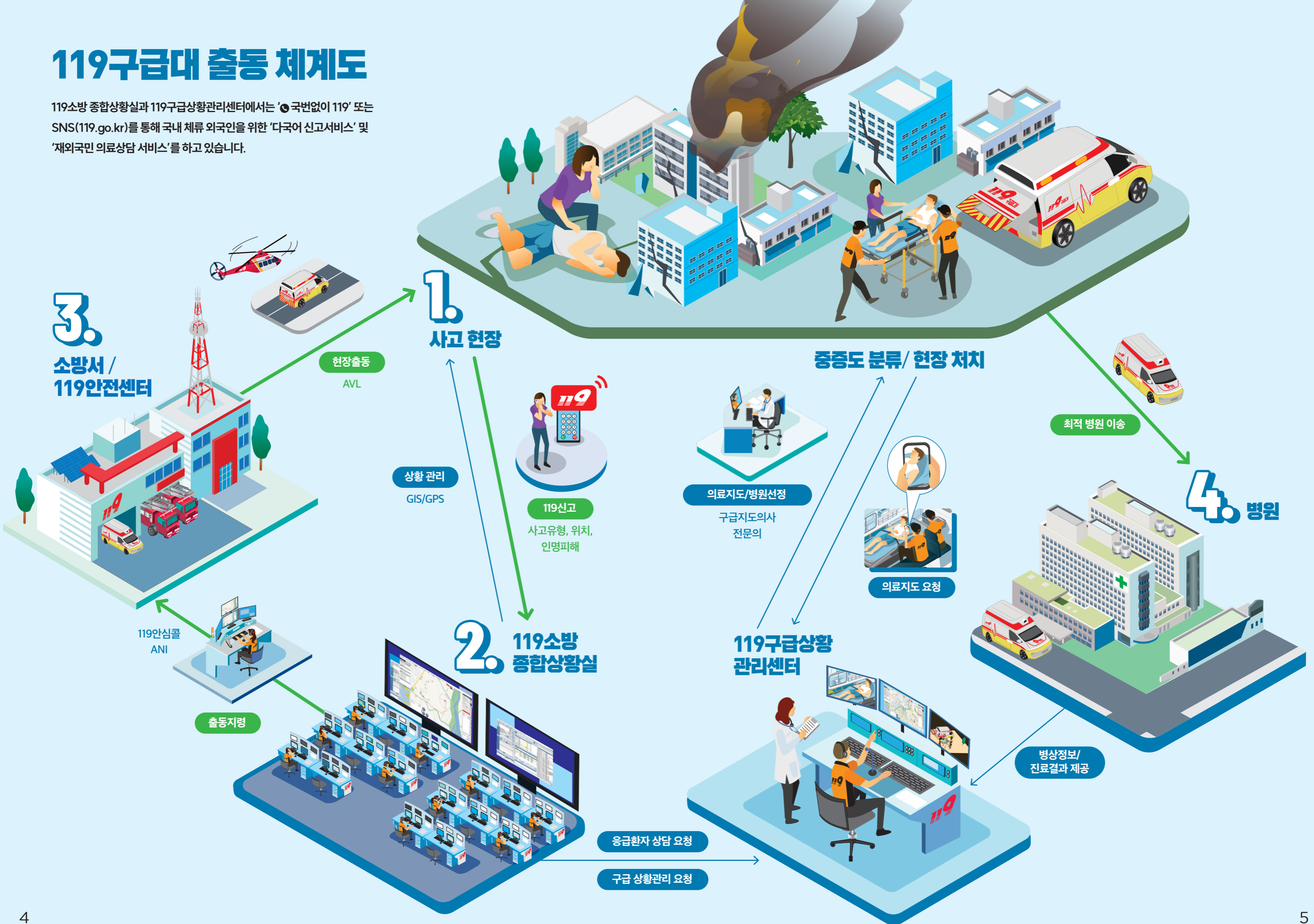
-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에 설치되어 3년 평균 154만 건의 상담과 의료지도로 국민과 119구급대원을 원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구급지도의사(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구급상황요원이 배치되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재외 국민에 대한 응급의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지도	의료지도	이송병원 안내	구급차 출동	전원조정
409,075	171,376	37,405	2,408	2,408
재외국민 의료상담	질병상담	의료상담(병원·약국)	기타	
3,811	156,745	880,422	9,242	

119구급대원은 구급 환자의 상태에 맞는 병원을 선정합니다.

119구급대 출동 체계도

119소방 종합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국번없이 119' 또는 SNS(119.go.kr)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신고서비스' 및 '재외국민 의료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급 차량에는 구급처치와 이송을 위한 전문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구급환자 이송수단에는 구급차, 소방헬기, 소방선박, 오토바이, 펌블런스가 있으며 출동하는 소방 차량번호는 '998' 또는 '999'로 시작됩니다. 구급차에는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구급 환자처치를 위한 147종의 각종 장비를 적재하고 있습니다.

1. 호흡 및 기도확보 유지장비



2. 검사장비



3. 순환유지장비 및 의약품



4. 외상처치 소독제 및 소모품



5. 환자이송 장비



6. 심장충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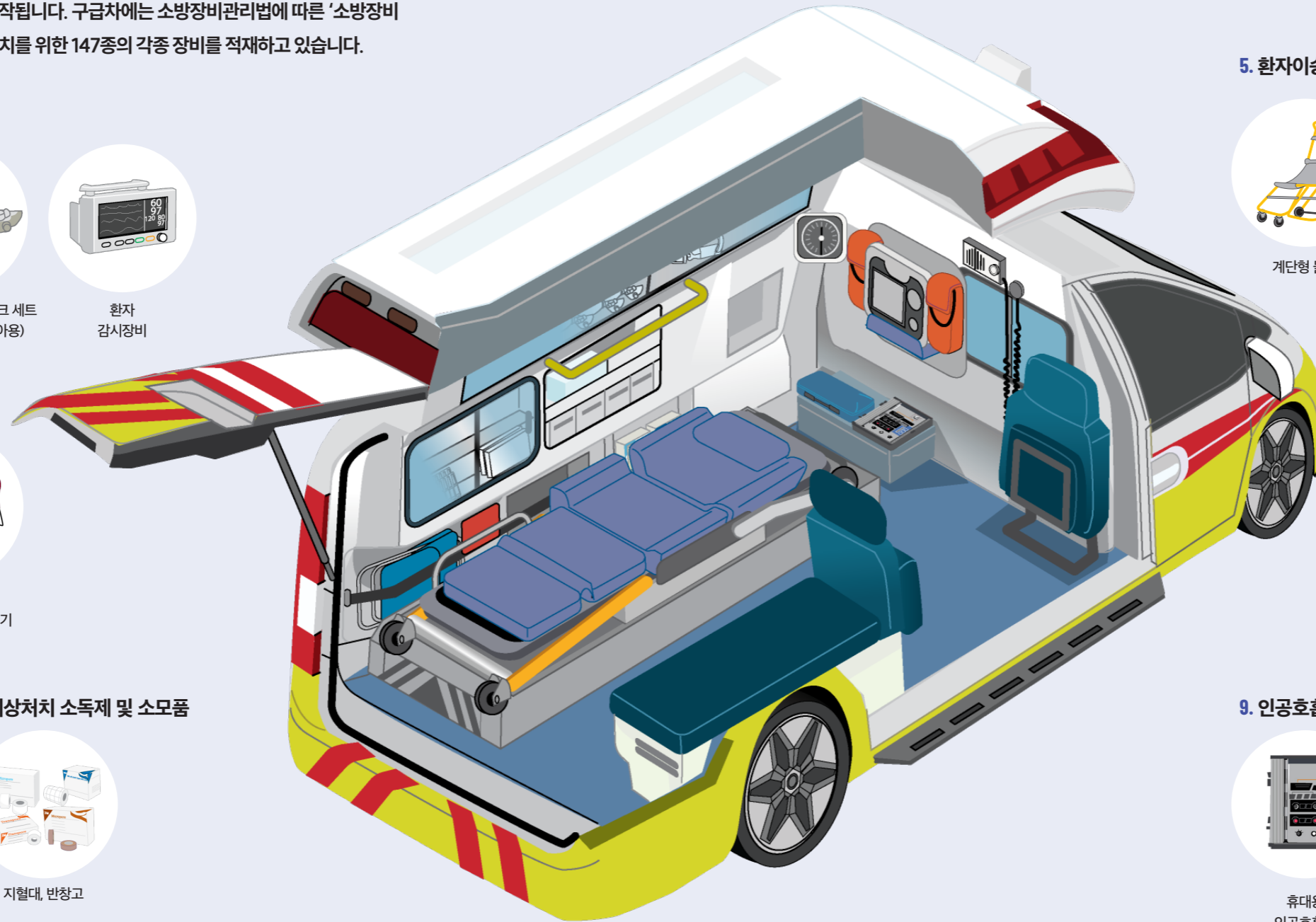
7. 전문 구급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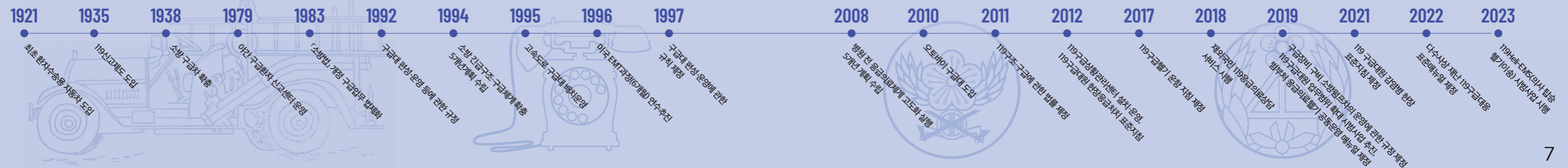
8. 감염보호복




9. 인공호흡기, 산소소생기



119구급대 구급업무의 주요 연혁



대한민국 소방 '119구급대'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구급환자의 응급처치와 긴급이송을 위해 소방헬기와 소방선박, 소방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119구급대는 잠들지 않습니다.

14,000명의 119구급대원은 1,625대의 구급차와 함께 전국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각종 사고 현장에 매년 약 350만 건을 출동하고 200만 명의 구급 환자를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구급 환자를 위해 보다 빠른 출동과 보다 안전한 현장 도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정지 등 4대 중증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 현황

구급대원	구급차량	소방헬기
13,896	1,625	33
소방정	펌플런스	
22	1,482	

119구급출동 현황 (단위: 건)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3,564,720	1,969,375	1,996,688
구급차 1대당 이송 인원	미이송건수	
1,229	1,262,668	


구급환자 증상별 현황

통증	외상	어지러움	전신쇠약	구토	고열	오심	※ 복수체크 가능 계 3,525,539
998,759	399,440	247,332	238,800	176,793	175,767	155,570	
호흡곤란	출혈	의식장애	실사	기침	경련/발작	심정지	
135,105	86,022	80,267	58,049	53,017	39,577	34,978	
호흡정지	실신	가슴불편함	마비	심계항진	배뇨장애	기타	
34,153	29,971	28,255	26,814	11,796	16,234	498,840	

구급환자 이송현황

<직업별>			계 1,996,688	<연령대별>			계 1,996,688
영아	유아	학생		10세 미만	10대	20대	
21,028	51,510	128,674		86,744	81,489	157,417	
주부	자영업	직장인		30대	40대	50대	
193,962	53,157	503,995		150,085	186,099	272,230	
무직	기타	미입력		60대	70대 이상	미상	
877,316	167,001	45		339,019	723,575	30	

119구급대는 구급 환자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고 빠른 사회복귀를 위하여 119상황요원과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는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원의 출동 서비스의 업무향상을 위해 매년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19구급차가 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고 병원에 이송하는지, 어떤 응급 처치를 하는지, 환자들의 치료 결과 향상에 구급대원 활동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환류 단계를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19상황요원과 119구급대원을 품질관리 지표에 의해 평가하고 700쪽 분량의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4단계(신고·출동, 현장, 이송, 평가·환류)로 나누어 업무개선을 추진하여 구급 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급 품질관리 지표

- 1. 신고·출동단계의 정확한 상황관리 지표**
 - ① 수보단계 심정지 인지율
 - ② 상담단계 자동심장충격기 안내율
 - ③ 상담단계 전화지도 CPR 안내 시행률
- 2. 심정지환자 병원 도착전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지표**
 - ④ 심정지 환자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 3. 중증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 지표**
 - ⑤ 중증외상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 ⑥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 ⑦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 ⑧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노력

- 4. 구급활동에 대한 관리강화 지표**
 - ⑨ 심정지환자 심전도 기록지 첨부 적절성
 - ⑩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의료지도 준수율
 - ⑪ 특별구급대 12유도 심전도 촬영률
- 5. 환자이송체계 개선을 통한 환자소생률 제고 지표**
 - ⑫ 병원전 중증도 분류 교육 이수율
- 6. 다중출동체계 운영강화 지표**
 - ⑬ 펌플런스 출동 기록일지 작성률

119구급대는 보다 더 향상된 전문기술과 혁신적인 능력 배양을 통해 재난사고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중단없는 전진을 합니다.

 119구급대는 혁신을 거듭하여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는 끊임없는 구급의료서비스를 위해 병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119구급활동 정보시스템과',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구급환자 발생에서부터 치료, 집단 입·퇴원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이 정보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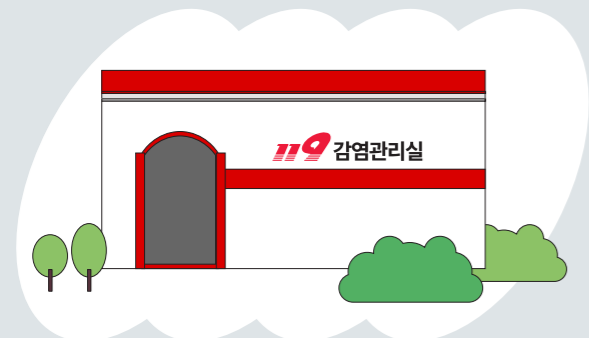
구급 이송증명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부 민원24'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서 '이송증명원' 발급을 통해 보험처리 등 각종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와 예방을 위해 '119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환자들과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전국 240개 소방서에 '119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소독, 멸균 등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매년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심콜이란?

'119' 신고와 동시에 소방출동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전에 등록된 개인정보와 병력정보**를 현장으로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에게 제공하여, 골든타임 내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맞춤형 응급 처치 및 병원 이송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도 문자를 통해 '119구급대'가 출동 중임을 알려드리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된 이래 10만 명의 가입자가 '119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119.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가까운 소방서와 소방체험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CPR) 및 심장충격기 사용법, 생활 응급처치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1. 어디에서?

전국 13개소의 '소방안전체험관'과 가까운 소방서의 '소방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누가 가르쳐 줄까요?

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현장경험과 체계적인 전문교육 과정을 거쳐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육강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왜 119 일까?

1935년 10월 1일 우리나라에 전화번호 체계가 도입되면서 '119'번을 화재 및 구급차 호출 번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19는 번호의 단순함과 소방대원의 활약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응하는 용어로 확대되었고, 모든 재난·재해 발생 신고 전화도 '119'로 통합되면서 '소방'이라는 말보다 '119' 번호가 더 많이 더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119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한다는 뜻에서 **'일일이 구한다, 일일이 구조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구급 환자의 응급처치와 안전한 이송을 통해
환자의 경과를 좋게 하고
빠른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는 박동하는 심장의 심전도 그래프를
이미지로 형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119구급대'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